

독일명품가전 밀레 최고급 전자레인지 출시

- 밀레 200만원 대 최고급 빌트인 전자레인지 출시... 총 7개 세기단계 조절가능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사용... 마이크로파 흡수되지 않고 조리실 청소도 간편

독일 명품가전 밀레(www.miele.co.kr 한국지사 대표 안규문)는 25일, 세기단계를 음식물 특성에 맞게 조절 할 수 있는 최고급 빌트인 전자레인지(모델명: M8260-2)를 출시한다.

신제품 빌트인 전자레인지는 총 26리터의 넓은 조리실과 45cm 높이의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과 고급스러운 검정색 강화유리의 조화로 밀레만의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준다. 조리실 전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마이크로파가 흡수되지 않고 반사가 잘돼 열이 음식물에 골고루 전달되며 조리실 청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총 11개의 해동, 데우기 오토프로그램이 탑재돼있어 사용이 간편하고 냉동 식품이나 음식을 신속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오토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이얼로 조리할 음식물의 무게를 입력하면 조리시간 및 세기단계가 자동으로 설정돼 사용이 편리하다. 또 조리 과정을 최대 3단계까지 입력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700W에서 작동하는 기존 전자레인지 방식과는 달리 80~900W까지 총 7개의 세기단계를 음식물 특성에 맞게 조절 할 수 있어 음식물 손상을 최소화했다. 또 조리과정이 끝나고 음식물을 바로 꺼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온기능이 최대 15분까지 작동해 언제나 따뜻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

밀레 빌트인 전자레인지는 전면의 간편시작버튼을 누를 때마다 30초, 60초, 120초로 설정돼 시간에 최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동시간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제품구입시 덮개와 히터봉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히터봉은 액체 데울 때 비등점에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밀레 빌트인 전자레인지는 전자식으로 조절되며 두 개의 다이얼로 시간과 무게 및 세기단계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액정판에 현재시간과 각 종 설정이 표시되고 현재시간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량이 적은 밤시간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가격은 2,017,000원(부가세포함)

문의: 02-3451-9451

